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60
FEB 26 2021

발간년월 2021년 2월 26일 (통권 제16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이주호 감수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극동 러시아, 지리적 이점으로 빠른 경제성장 기대
- 극동개발공사·자유항 입주기업, 주거복합단지 건설
- 우즈벡, 글로벌 기업과 수소 에너지 개발협력 강화

전문가 칼럼

- 조선기자재 산업, 새로운 한·러 협력사업으로 부상

주요 통계

- 2020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극동 러시아, 지리적 이점으로 빠른 경제성장 기대

■ 중국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거대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아시아 지역이 연결성을 바탕으로 향후 3년 내 러시아 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a)}

-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남쪽으로는 중국, 북한, 몽골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일본, 북동쪽으로는 미국(알래스카)과 연결되어 있음
-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는 6,293,129명으로 극동의 광대한 영토 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하나임
-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북극항로 인프라 및 자원개발 확대와 투자 지원 정책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극동지역은 아시아의 제조 및 생산 센터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음

그림. 러시아 지도



■ 극동 러시아의 산업 성장률, 제조 성장률, 인프라 투자율 등 대부분의 지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

- 러시아 극동지역의 2020~2023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상 성장률은 러시아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는 인프라, 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가 종료되기 때문임
- 하지만 러시아 북극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무료 토지 제공, 세금 인센티브 등 기타 혜택으로 인한 2차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산업 성장률은 8.4%로 러시아의 다른 지역(4.3%)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극동 러시아 지역 대부분은 사할린과 추코트카를 제외하고, 러시아 평균을 초과하는 성장률이 예측되는데,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광업 및 광물 채굴 부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예상 성장률 2020~2023

	2020	2021	2022	2023
Russia	-3.9	+3.3	+3.4	+3.0
Far East Region	-7.2	+3.4	+2.39	+3.52
Buryatia & Irkutsk	-4.8	+1.5	+1.6	+1.7
Yakutia	-5.0	+3.5	+4.6	+3.9
Zabaykalsky	-3.5	+2.2	+2.7	+3.0
Kamchatka	+0.1	+3.4	+3.5	+3.1
Primorsky	-3.9	+3.8	+3.6	+3.8
Khabarovsk	0	+3.0	+2.7	+3.1
Amur	+3.6	+13.3	+1.1	+3.8
Magadan	+3.5	+3.4	+3.5	+3.1
Sakhalin	-0.04	-5.2	-1.01	+1.1
Jewish Autonomous Region	-0.08	+3.5	+4.0	+3.1
Chukotka	+3.1	+5.2	+18.2	+9.1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a)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n-asia-taking-off-as-asian-interconnectivity-improves.html/> (2021. 2. 25. 검색)

극동개발공사·자유항 입주기업, 주거복합단지 건설

■ 극동 러시아 자유항 입주기업이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르만 연안에 고층 주거복합단지를 건설^{a)}

- 자유항 입주 건설업체는 극동개발공사와 합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르만 연안에 고층 주거복합단지를 건설했음
- 주거복합단지는 44개 동의 고층건물과 20여 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공간과 정비실을 갖춘 3층 부속 건물로 설계되었음. 탁 트인 도시 전경과 3.3~3.6m 정도의 천장 높이의 220여 개 동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었음
- 블라디보스토크 부동산 중개 사무소 튠즈(Tunes)는 “블라디보스토크 주거복합단지는 넓은 부지와 도시 중앙에 위치해 발전된 교통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튠즈의 대표 바바드자얀 노브네스(Babadzhanyan Hovhannes)는 아쿠아마린(aquamarine) 프로젝트에 따라 제공되는 아파트 비율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연간 시장규모의 25%를 차지한다.”라고 밝힘

그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고층 주거복합단지



자료: <https://erdc.ru/news/rezident-svobodnogo-porta-postroil-vo-vladivostoke-elitnyy-zhiloy-kompleks-/>

■ 자유항 입주기업의 투자는 극동 지역 입주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예상^{a)b)}

- 극동개발공사 입주기업 담당 정책과장은 인터뷰에서 “자유항 입주기업은 주거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42억 루블을 투자했는데, 이는 약 10년 동안 1억 9500만 루블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현지 이 지역에서는 2112개의 기업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 자격으로, 약 1조 1000억 루블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8만 9000명의 극동지역 입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자유항 제도는 극동지역 경제·사회 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극동지역 수산양식장 전자경매제도 도입, 즈베즈다조선소 현대화 사업,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국유지 무상제공), 블라디보스토크 LNG 프로젝트 등이 있음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a) <https://erdc.ru/news/rezident-svobodnogo-porta-postroil-vo-vladivostoke-elitnyy-zhilo-y-kompleks-/>(2021. 2. 22. 검색)

b) <https://erdc.ru/about-spv/>(2021. 2. 22. 검색)

우즈벡, 글로벌 기업과 수소 에너지 개발협력 강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사우디 ACWA 파워와 미국 Air Products와 함께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a)}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소연료를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 중 사우디 ACWA 파워는 우즈베키스탄에 복합사이클 가스터빈(CCGT) 공장과 2개의 대형 풍력 발전 시설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전반에 친환경적이고, 비용 경쟁력 있는 가스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 전력 용량의 8%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프레임워크 협약 체결



■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일본, 해외 컨설팅업체 등의 지원으로 ‘전력분야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a)}

- 이 로드맵(A Carbon-Neutral Electricity Sector in Uzbekistan)은 2050년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전력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사업에 2030년부터 2050년까지 GDP의 약 2%를 투자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천연가스 매장량 보존, 고부가 가스화학제품 생산 확대, 수소경제 발전 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50년 내에 메탄가스를 수소로 전면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조선기자재 산업, 떠오르는 한·러 협력 분야

강남영 이사장(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러시아 거점기지)

“2019년 조선기자재 수출 실적이 22억원, 20년에는 52억원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2019년 7월에 러시아 거점기지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비즈니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었죠?”

“사실 우리 한국조선해양공업협동조합은 러시아 거점기지가 2019년 하반기에 개소되기 전부터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기에 가능했습니다. 2020년은 러시아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해였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영업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O2O(Online to Offline) 전략으로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해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죠?”

“예, 그럼요. 올해는 블라디보스토크 거점기지는 “어선용 기자재 패키지 공급 전략”과 “기자재 현지화 전략”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점기지는 “한·러 조선기자재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의 신북방과, 조선과, 그리고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과 2월 1일 화상회의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조선 관련 기업들도 러시아 시장의 중요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러시아 조선통합공사를 비롯하여 수산청, 조선소, 설계회사 등이 수시로 화상회의를 요청하는 상황만 봐도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러시아 조선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는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첨단 선박을 인도하는 등 2020년을 러시아 조선산업의 성공적인

해로 평가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는 한국, 중국에 이어 수주 금액 세계 3위(46억 달러), 수주량 세계 4위(95만 CGT)를 기록하며 조선산업의 한, 중, 일 3강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러시아 조선산업은 정부 주도의 군사용 선박 건조 중심으로 80~90%가 집중되어 있어, 민간조선 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정부는 “2015~2030 조선해양기자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발전에 추진동력을 실어줄과 동시에 민간조선 분야의 육성 및 러시아 자국 내 선박 건조를 확대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민간 선박의 대규모 갱신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35년까지 최소 357척에서 최대 651척, 현실성을 반영한다면 463척이 건조될 것이라 예상한다. 총 선가는 2조 3000억 루블(30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선박 건조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어선 건조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 러시아는 현재 55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11월까지의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 규모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7.54% 증가했다. 주요 시장은 중국(53.16%), 한국(32.82%), 유럽연합(7.5%)으로, 해외시장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단과 가공 인프라의 추가 확보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19년 2분기 기준, 러시아 어선단은 약 5500척(강상, 해상 및 바다와 강 겸용선으로 구성)으로 러시아 전체 선단에서 선박 척수 기준 약 18%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어선의 50% 이상이 표준 수명보다 오래 운용되었고, 대형 어선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가공 프로세스를 설비한 최소 90척의 신규 대형 어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획 투자 쿼터 배분 방법도 어선 신조에 한몫했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장 일리야 셰스타코프(Ilya Shestakov)는 2017년 6월 정부가 투자와 어획 쿼터를 연동하여 배정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53건의 어선 건조계약 및 24건의 육상 어류 가공시설 건설 계약 등 총 7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어선 또는 어류 가공 인프라를 건설하는 어업회사에 어획 쿼터를 각각 15%, 5%를 배정하는 것이다. 또한, 크랩 어획 쿼터 50%가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41척의 크랩 어선이 건조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는 투자 쿼터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현재 중소형 어선을 활발히 건조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에 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두 척의 LNG 운반선 중, ‘크리스토퍼 더 마르제리(Кристоф де Маржери)’호가 쇄빙선 도움 없이 북극항로를 단독 운항을 마쳤고, ‘니콜라이 예브게노프(Николай Евгенов)’호도 운항 막바지에 이르렀다. 해당 선박은 기존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항로보다 40% 가량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LNG 가스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현재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젤-전기추진 쇄빙선 33척을 포함하여 37척이 운용되고 있다. INFOLine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까지 LNG 운반선 32척, 원유 운송용 유조선 20척, 가스 컨테이너 운송용 유조선 8척, 석탄 운송용 벌크선 6척 등 신규 선박 90척이 북해항로 화물 운송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 수리조선 시장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2035 조선업 개발전략”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수리 시장 규모는 2020년 880억 루블(1조 4000억 원)에서 2035년 1440억 루블(2조 3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선의 수리 수요 증가,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개조시장(Retrofit) 확대 등이 주요 이유이다. 2020년 기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수리 중인 어선은 약 560척이었으며, 평균 선령이 30년에 달하는 등 노후화 상태가 심각하다. 또한, 2020년부터 발효된 IMO 환경규제에 따라 러시아 선박에 등록된 선박 평형수 처리시스템(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설치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신조 및 수리조선에 투입되는 기자재는 어디서 공급되는 것일까? 러시아는 조선기자재에 대한 자체 공급망이 부족하다. 유럽 설계, 미국 및 일본 공급 중심으로 민간조선 분야에서 해외 기자재 비용에 대한 비중이 40~85%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디젤엔진, 공조기 시스템, 자동 항법 운항 장치, 연료 공급체계, 화물 하역 장치, 화재 진압 시스템, 전기 공급 시스템, 항해 통신장비, 구명정 등은 러시아산이 경쟁력이 낮은 분야로 현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의존의 문제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주요 기자재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이다. 선박 건조 기간이 평균 2~3년씩 지연되는 등 기자재 공급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러시아 정부는 단순 신조 확대 정책이 아닌, 러시아 조선·해양 산업을 전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5~2030 조선해양기자재 개발 프로그램”을 필두로 조선해양기자재의 국산화 및 현지화를 통한 발전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제 더는 서

방국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다.

러시아 정부는 법령 719호를 개정하면서 선종에 따른 기자재 현지화 점수제를 도입하면서, 러시아 선박의 현지 건조 인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러시아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기업이 러시아 현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현지화 수준이 결정되며, 현지 생산 여부에 따라 보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북극항로 화물 운송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지 건조 인정 기준이 중요해졌다.

현재 러시아산 기자재는 수입 기자재와 비교 시 가격,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낮고, A/S, 설치, 시 운전, 유지보수 등 사후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러시아는 상당 기간에 특수 선박과 군수 선박용 기자재 생산에 최적화되어 민간 선박용 기자재와의 호환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현지 시장 상황은 우리나라 기자재 기업을 비롯하여 조선 관련 기업에 매우 좋은 진출 기회다. 우리나라는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점도 있다. 물론 중국산 기자재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기술경쟁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러시아 조선기자재 시장에 장기적인 공급 루트를 구축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 10회 한·러 극동 포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하 KOMEA)는 한·러 양국은 조선산업 상생 발전을 위해 단계별 협력을 추진 중이다. 1단계로는 한국산 기자재를 패키지 형식으로 공급하고, 2단계로 조타기, 밸브, 선박 가구 등의 기자재를 러시아에서 생산하기 위한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어선 공동 설계 및 공동건조를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크랩 어선에 대한 공동 설계와 건조는 이미 제안을 하여 양국이 검토 중이다. 또한, ‘제10회 한·러 극동 포럼’에서 러시아 수산청에 크릴새우 조업용 어선의 공동 설계 및 건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러시아 측에 제안하였다. 해당 어선 공동건조는 러시아 현지에서 블록을 제작해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공동 설계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국내 기자재를 사양에 반영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OMEA는 국내 기자재 기업의 현지 A/S 지원 센터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블라디보스토크에 운영함으로써 기자재 공급 확대에 따른 현지 선사의 A/S 요청에 대응하고, 국내 조선소의 현지 선사 대상 신조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러시아 조선기자재 시장은 현지 신조 물량 확대에 의해 지속해서 성장할 전망이다. 동시에 대러 경제 제재에 따라 기존 유럽에서 공급되던 기자재 공급망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우리 기자재 기업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KOMEA 러시아 거점기지는 국내 기자재가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러 기자재 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단계별 현지화 전략을 통해 국내 기자재 기업을 힘껏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1. Коммерсантъ 기사:

-<https://www.kommersant.ru/doc/4637598?query=%D1%81%D1%83%D0%B4%D0%BE%D1%81%D1%82%D1%80%D0%BE%D0%B5%D0%BD%D0%B8%D0%B5>

-<https://www.kommersant.ru/doc/4141990>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3698

3. Sea news of Russia 기사:

- <http://www.morvesti.ru/analitika/1691/87615/>

4. RZD-partner 기사:

-<https://www.rzd-partner.ru/wate-transport/news/v-rossii-prognoziruyut-rost-lokalizatsii-sudostroeniya/>

5. Russian exports 기사

<http://www.rusexporter.ru/news/detail/11781/>

6. KOTRA 보고서

러시아 시장 환경과 경제협력: 조선

7. KORABEL 기사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v_rossii_na_dannyy_moment_zaklyucheny_53_dogovora_na_predostavlenie_kvot_pod_stroitelstvo_rybopromyslovyh_sudov.html



주요 통계



표. 2020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2.34 (+8,5%)	6.38 (-2,3%)	18.72	+4,6%
북극해	2.46(-4,9%)	5.76 (-9,9 %)	8.22	-8,4%
발트해	10.93 (+2,4%)	10.33 (-12,0%)	21.26	-5,8%
아조프-흑해	9.61 (+16,1%)	11.63 (-13,4%)	21.24	-2,4%
카스피해	0.23 (+21,2%)	0.4(+2,5%)	0.63	+9,5%
합계	35.57 (+7,6%)	34.5(-10,4%)	70.07	-2.3%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젤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11_mesyacev_2020_goda_sokratilsya_na_2_3.html (2021.1.21. 검색)
- <https://www.rusagrotrans.ru/press/novosti-otrasli/gruzooborot-morskich-portov-rossii-za-12-mesyatsev-2020-goda/> (2021.1.21. 검색)

표.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92,385.8	63,662.4	3,476.1	1,172.1	395,861.9	64,834.5
광물 제품	1,024,552.3	35,285.6	29,442.0	37,716.1	1,053,994.2	73,001.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830,332.8	34,745.2	679.2	0	831,012.1	34,746.3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299.1	64,780.6	601.4	516.5	4,900.5	65,297.1
가죽원료. 모피 제품	1.3	1,799.6	1.0	3.5	2.3	1,803.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0,912.2	8,759.6	491.2	164.8	81,403.3	8,924.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206.1	29,685.9	10.2	226.6	216.3	29,912.5
금속 및 금속 제품	42,978.9	65,365.4	302.4	4,358.4	43,281.4	69,723.8
기계류	124,701.3	521,670.0	462.3	1,548.2	125,163.7	523,218.2
기타	664,321.9	37,508.1	18,703.4	612.9	683,025.3	38,121.0
합계	3,164,691.8	863,262.5	54,169.2	46,320.2	3,218,861.0	909,582.6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y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1.15. 검색)

표.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선어,냉장어	2	6.8	—	—	—	—	—	—	1.9	6.8	—	—
냉동어	212,985	281,620.3	357	1,782.2	654	529.5	—	—	213,638.1	282,149.8	597	1,938.0
연어류	25,795	86,331.1	—	—	0	0.0	—	—	25,795.2	86,331.1	—	—
넙치	521	2,713.8	—	—	—	—	—	—	521.2	2,713.8	—	—
가자미	127	108.5	—	—	—	—	—	—	127.0	108.5	—	—
가자미류	2,052	1,448.3	—	—	—	—	—	—	2,051.7	1,448.3	—	—
청어	70,866	39,844.9	—	—	117	64.6	—	—	70,983.3	39,909.5	—	—
대구	11,268	29,599.6	—	—	—	—	—	—	11,268.2	29,599.6	—	—
명태	66,223	71,432.1	—	—	533	460.9	—	—	66,756.8	71,893.0	—	—
농어	30	83.4	—	—	—	—	—	—	30.2	83.4	—	—
간, 곤이 (어란)	1,280	195,814.6	—	—	—	—	—	—	1,280.1	30,731.5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1,047	1,623.8	—	—	—	—	—	—	1,046.6	1,623.8	—	—
생선 필렛, 어육	3,965	11,140.3	250	986.0	26	66.7	—	—	3,991.3	11,207.0	250	986.0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8	211.1	178	989.3	0	0.0	—	—	118.1	211.1	178	989.3

갑각류	13,192	316,533.4	106	608.3	—	0.0	—	—	13,191.4	316,533.4	106	608.3
계류	11,632	303,068.7	—	—	—	0.0	—	—	11,632.5	303,068.7	—	—
조개류	9,709	29,454.2	—	—	62	69.5	—	—	9,770.9	29,523.7	—	—
가리비	541	1,528.0	—	—	—	—	—	—	541.1	1,528.0	—	—
오징어류, 문어류	8,283	21,942.6	142	551.2	62	69.5	—	—	8,344.0	22,012.1	142	551.2
수산 무척추 동물	2,687	7,086.3	—	—	0	36.6	—	—	2,687.0	7,122.9	—	—
해삼류	697	999.2	—	—	0	36.6	—	—	697.5	1,035.8	—	—
성게류	1,872	6,026.6	—	—	—	—	—	—	1,872.4	6,026.6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2.10. 검색)